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2월 9일(금)

(음력 12월 30일)

Пятница

9 февраля 2024 г.

№ 5 (1207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공원.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올해 가정의 해를 축하.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주, 가정의 해 공식적으로 시작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올해는 가정의 해로 지킨다. 지난 2월 4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공원에서 있는 기념행사에서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은 가정의 해를 공식적으로 시작됨을 알리고 기념식 참석자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했다.

사할린에서 잘 알려진 예술단들이 주민들에게 공연을 선사하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가족놀이에 참가하며, 튜브썰매를 타고, 털장화신고 하키 경기를 하며, 탈인형과 사진을 찍기도 했다. 공원 방문객들은 장난감과 장식품, 액세서리, 사할린의 솜씨 좋은 사람들이 만든 병어리 장갑을 살 수도 있었다. 또한 누구에게나 무료로 차를 곁들인 빵과 무알콜 글린트웨인이 제공됐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가족은 정신적 힘과 생활의 활력과 기쁨, 사랑의 원천입니다. 이는 우리 나라를 위한 소중한 발판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튼튼할수록 국가도 강해집니다. 우리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자녀를 가진 가정을 지원하고,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며,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할린주에 있는 가정들이 편안하고, 재미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가족과 친지들을 돌보며, 그 기쁨과 화목한 분위기로 가득 채웁시다. 모든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친애하는여러분!

2월 8일은 러시아 과학의 날로 기념합니다. 이 날을 맞아 과학탐구에 종사하시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미하일 로모노소프, 드미트리 멘델레예프, 이고리 쿠르차토프, 세르게이 코롤료프 등 많은 국내 과학자들이 세계 학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수천 명의 우리 학자들이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고, 이들 덕에 러시아는 분명 지식의 핵심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할린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과학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원으로 우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세계적 수준의 '사할린테크' 캠퍼스를 건설하고, 선도공업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새로이 설립된 대학은 사할린 경제의 요구에 따른 새로운 과학적 연구와 고급 인재양성을 위한 거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할린주에 전도 유망한 학자들을 유치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위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며, 러시아의 국력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과학계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탁월한 발견과 성취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지들에게 행복과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며 과학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왈레리 라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주지사, 스미르니흐 구역 방문

2월 6일(화)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스미르니흐 구역을 실무출장차 방문한 가운데 공공시설 개선에 따른 작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시찰하고, 스미르니흐 3호 구역의 아파트 입구를 방문했다.

스미르니흐 구역 이리나 카르푸코와 시장의 말에 따르면 2023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아파트 84 동의 입구를 보수공사했고, 올해엔 90동의 입구를 개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에는 모든 주택가 안마당을 보수공사하며, 몇몇 주택 인접구역은 내년에 대대적으로 보수공사를 계속할 예정이고, 90동의 입구와 모든 주택가 안마당은 이번 시행책으로 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주지사는 예술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만남을 가졌다. 스미르니흐 예술학교는 사할린 주의 중북부 지역을 위한 '시리우스'기획의 중심 기지가 된다.

주지사가 스미르니흐구역의 주민들과 만남을 가진 가운데 주택 문제가 화제로 떠올랐다. 이 지역 한 여성 주민은 2026년에 노후주택에서 이주하게 되는데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이리나 카르푸코와 말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는 주택 건설이 한창이며, 노후주택으로부터 이주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년에는 지역 중심지에 77가구가 거주할 아파트 2동이 완공되고, 그중 한 동에 이 여성이 주지사에게 의탁한 편안한 집을 얻게 된다.

스미르니흐 구역에서는 매해 9000 - 11000m²의 새로운 건물을 준공하고 있는 가운데 5년간 30동의 주택이 건설돼 이주했고, 671가구가 새 집으로 이사했다. 주민들은 새로운 집의 품질에 대해서도 문제를 말했다. 또한 건축 및 도로 보수공사, 주택공공사업 및 다른 분야의 개선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스미르니흐 주민과 만남에서 주지사는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부합한 지침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시행 기한을 정하기도 하며 거의 40개 질문에 답변을 했다.

또한 주지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 공격작전을 위한 스미르니흐박물관을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만났다. 현재 노인봉사자 15여 명이 이 박물관에서 위장망과 참호양초를 만드는 등, 특수군사작전 구역에서 필요한 물건과 장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시찰했다.

단신

사할린, 음력설 맞이

2월 10일은 음력설이다. 이 날을 맞아 여러 단체와 교육기관들이 음력설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2월 8일(목)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체부라슈카' 제9 유치원(루고워에 마을), 2월 9일(금)은 코르사코프 제2학교에서 즐거운 설 행사를 진행하고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는 2월 10일(토) 오후 3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곤)도 10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바운티 홀'레스토랑에서 구정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지방들에서도 여러 설 행사가 열린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양계장, 비상사태 대처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오스트로브나야' 양계장에 산란닭들이 A형 조류독감으로 폐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사할린 지역 축산부가 전했다.

2월 4일(일) 산란닭들의 혈청 샘플을 검사한 결과 독감 전염병 양성반응이 나왔다. '오스트로브나야' 양계장은 기업의 예기치 못한 가축전염병의 상황과 관련해 업체의 닭고기 및 달걀 생산을 중단하고, 비상상황 예방책을 실시했다.

현재 양계장에서 산란닭의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독성물질이 사료에 섞였는지에 대한 연구검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사할린 경찰청이 '오스트로브나야' 양계장 상황을 감독하고 있다.

음력설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제1회 윗놀이 한마당 개최

지난 2월 2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무한한 지식의 원천을 열어' 기획의 일환으로 제1회 열린 윗놀이대회(전통놀이 한마당 윗놀이)가 펼쳐졌다.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동양학부, 사할린주 한인협회, 사할린주 한국어교사협회, 사할린주 청년회 주최로, 사할린한국교육원과 사할린 아리랑 장학회 후원으로 개최된 윗놀이대회에 12 팀(6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경기를 하였다. 첫째 그룹은 학생그룹으로 7-11학년 학교 학생들과 대학생(6팀)들, 둘째 그룹은 성인그룹으로 한국어교사, 교육자, 주 한인협회·주 청년회·씨름협회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교육문화기관의 교사들과 학생들만 아니라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교육기관의 대표들도 참가하였다.

대회 진행을 맡은 사할린 한국어교사협회 인나 코르네예와 회장과 기획의 총 담당자인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임 엘비라 학장은 설날의 전통적인 민속놀이인 윗놀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회 주최 측, 참가자, 대회순서, 윗놀이 규칙 등을 소개했다.

이날 사할린한국교육원 정승훈 원장, 한인문화센터 김미경 한국어 강사를 비롯해 사할린 아리랑 장학회 회원 등 총 6명이 한국인 원어민으로서 대회 심판을 맡았다.

윗놀이가 시작되자 놀이를 직접 하는 사람이나,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경기 결과는 흥미로웠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 따로 경기를 진행하다보니 수상팀도 많았다. 학생그룹에서 3 팀, 성인그룹에서 3팀이었다. 팀의 명칭은 없었고 번호로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신기하게 두 그룹에서 5:0로 우승한 팀 번호가 2번이었다. 그리고 학생 그룹이나



성인 그룹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꼴찌팀 번호는 4번이었다. 이들은 0:5로 졌다.

또한 이날 행사 일환으로 희망자들을 위한 퀴즈대회가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은 기념으로 상품을 받았다.

웃고, 따지고, 우스갯소리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윗놀이 한마당의 참가자들은 함께 맛있는 다과회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취재: 배순신 기자)

사할린주 통계국, 근로임금이 가장 높은 업종 발표

사할린 통계국이 2023년 사할린주 산업별 직원의 명목상 집계된 월평균 근로임금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집계된 통계다. 가장 높은 근로임금을 받는 업종은 광물 채취산업, 금융업, 보험산업, 과학 및 기술산업 분야였다. 2023년 사할린주에서 광물 채취산업 종사자의 월평균 근로임금은 26만5,800루블리였는데 이는 당시 사할린 통계국의 자료에 따라 지난해 1월 기준 최대 수치였고, 평균 이 분야의 산업 근로자들은 54만 루블리를 받았다.

두 번째 높은 근로임금을 받는 업종은 금융 및 보험 분야의 종사자들로서 월평균 19만900루블리를 받고 있으며, 세 번째는 과학 및 기술산업 분야 종사자들로서 12만6,100루블리를 받고 있다. 사할린 통계국에 따르면 월평균 10만 루블리 이상을 받는 업종은 농업 분야(12만4,200루블리)와 운송 및 보관 업종(11만7,300루블리), 건설업(11만3,300루블리), 국가 공무원 및 사회복지 분야(10만500루블리), 행정기관 근로자(10만8,500루블리)였다. 사할린주 동력산업 분야의 종사자는 월평균 99,000루블리, 기타 공공산업 분야는 7만900루블리를 받았고, 주내 정보통신산업은 월평균 9만5,000루블리였다.

사회적 주요 사업 분야는 수준에 따라 2위와 3위 사이에 있었다. 보건 분야 종사자의 월평균 근로임금은 9만7,700루블리, 교육 분야는 8만6,600루블리, 문화 및 스포츠, 오락산업 분야는 8만9,900루블리였다. 동시에 사할린주에서 월평균 가장 낮은 근로임금을 받는 직종은 부동산 중개업(6만6,100루블리), 상업(6만4,400루블리), 호텔 및 요식업 분야(6만4000루블리)였다. 지난해 11개월간 자료에 따른 사할린주 월평균 근로임금은 11만700루블리였다. 또한 사할린 통계국은 지역 고용주들이 자신의 직원들에게 대단히 양심적으로 대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할린 통계국에 따르면 경제활동 조사유형에 따라 2023년 12월 1일 기준 소기업체를 제외한 사업체 직원들의 임금체불은 없었다고 밝히고, 지난해 11개월간 사할린주 업체들의 재정적 상황을 집계해 발표한 가운데 광물 채취산업은 수익이 많은 만큼 손실도 컸다고 전했다.

사할린주 통계국에 따르면 사할린주 수익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한 업종은 광물 채취산업으로 6천417억 루블리의 수익을 올렸으며, 과학 및 기술산업은 573억 루블리, 제조업은 176억 루블리, 운송 및 보관업은 105억 루블리, 어업 및 양식업은 71억 루블리의 수익을 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시기에 손실액도 큰 가운데 광산업의 손실은 350억 루블리에 달했고, 2위로 농산업과 함께 임업 및 수산업의 손실액은 30억 루블리, 3위로 운송 및 보관업이 14억 루블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모저모

사할린 가무단, 모스크바 정복

사할린주 아나와와 대표적인 가무단 '임폴스(자극)'가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5회 '성공의 정상' 전제적 소질과 재능의 국제 축제·경연에서 2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아나와시 행정부가 전했다.

사할린의 '임폴스'가무단은 <사무라이의 길>, 뱀파이어(흡혈귀)들의 무도회)라는 두 작품을 공연하여 모스크바의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가운데 <뱀파이어들의 무도회>공연이 대상을 받고, <사무라이의 길> 작품은 1등상을 받았다.'고 소식을 전했다.

2024년 동계 제 13회 <모스크바의 성좌>유청소년 및 성인 국제창작 경연축제에서 <뱀파이어들의 무도회>는 1등급의 칭호를, <사무라이의 길>은 2등급의 칭호를 얻었다.

Сахалинские танцоры покорили Москву

Образцовый эстрадно-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й коллектив «Импульс» Анив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оевал призовые места сразу в дву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фестивалях-конкурсах.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Ани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Сахалинцы впечатлили жюри и зрителей в Москве. Они показали две постановки - «Путь Самурая» и «Бал вампиров».

«В XXV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онкурсе дарований и талантов «Вершина успеха» коллективу присуждён Гран-при (высшая награда) за постановку «Бал вампиров». А за номер «Путь самурая» коллектив стал Лауреатом I степени»,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Звания Лауреата I степени за танец «Бал вампиров» и Лауреата II степени за постановку «Путь Самурая» удалось добиться в XIII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онкурсе-фестивале детского, юношеского и взрослого творчества «Московское созвездие» Зима-2024.

<탈장화 신고 하키>12회 선수권대회,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

2월 4일 <2024 펠트 부츠(탈장화) 신고 하키> 유치원 가족 스포츠 리그 경기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렸다고 사할린주 사회지원본부가 전했다.

린주 사회지원본부가 전했다.

매해 개최되는 가족 경기는 시공원에서 펼쳐지며, <탈장화 신고 하키> 경기는 <문제아 선드 스포츠> 사할린주 기획으로 2013년부터 열리고 있다.

"매해 호의적이고, 흥겨운 하키 경기에 사할린의 아동과 어른들 가운데 더욱더 많은 참가자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에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며, <탈장화 신고 하키> 경기는 '통합 러시아'당 사할린 지부와 사할린주 사회지원본부의 공동 협력으로 진행되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ся XII чемпионат «Хоккей в валенках»

В региональной столице 4 февраля прошел турнир детсадовской семейной спортивной лиги «Хоккей в валенках-2024».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штабе обще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жегодный семейный турнир провели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Соревнования «Хоккей в валенках» проходят с 2013 года благодаря областному проекту «Спорт против подворотни».

«С каждым годом это доброе и веселое направление дворового хоккея собирает все больше участников среди сахалинских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 добавили в сообщении.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участвовали 14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Праздник спорта прошел при содейств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совместно со штабом обще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계몽. 큰 전환>전시회에 사할린 주민들 초대

2월 2일(금) '러시아는 나의 역사'역사기념박물관에서 <계몽. 큰 전환> 전시회가 열리는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주민과 관광객들이 전시회에 가볼 수 있다.

전시회는 90년대 유치원의 자리 부족과 교과서 부재에서부터 교육시설의 현대적인 제반시설과 학생의 성장을 위한 무한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최근 10년간 국내 교육체계 발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어 관객의 시야를 크게 확장시켜준다.

물임형 관람 전시회는 '러시아는 나의 역사' 역사기념박물관에서 3월 24일까지 진행하며, 입장은 무료다.

관에서 3월 24일까지 진행하며, 입장은 무료다.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на выставку «Просвещение. Большие перемены»

2 февраля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парке «Россия- моя история»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Просвещение. Большие перемены». Жители и турист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огут посетить выставку.

Выставка поможет значительно расширить кругозор: на ней расскажут об истории развития отечественной сист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следних десятилетий: от проблем в 90-е годы с нехваткой мест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и отсутствия учебников, до совреме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объектов образования и безграничных возможностях для развития ребенка.

Иммерсив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по выставке действует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парке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до 24 марта. Посетить ее можно бесплатно.

사할린 주지사, 록 콘서트에 참석

2월 3일(토) 사할린 록그룹 음악 공연에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참석했다고 텔레그램 채널이 전했다.

사할린 필하모니의 무대에 '에카르파', '아나우', '세즈마야 바자', '쥬.에.엠' 그룹들이 공연을 펼쳤고, 지역 음악인들도 유명 곡들을 불렀다.

"매해 여름 사할린에서 개최되는 극동지역의 항공 및 음악 축제인 '사할린의 날개'를 기념하여 록음악 공연을 열었다. 지난해에는 3일간 진행된 행사에 5만 명의 사할린 주민들이 모이기도 했다."고 주지사가 언급했다.

2024년에 음악축제는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푸쉬스티 간이비행장에서 열린다고 주지사가 덧붙였다.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бывал на рок-концерте

В минувшую субботу, 3 февраля,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лушал на музыкальном вечере авторскую музыку островных рок-групп. Об этом он сообщил в своем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На сцене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выступили «Экарма», «Инау», «Седьмая база» и «Дж.Э.М.». Кроме того, прошло выступление местных артистов: они исполнили известные композиции.

(8면에 계속)

사할린주 사회원, 선거 감독을 위해 비영리단체들과 2차 협약 체결

사할린주 사회원이 러시아 연방 대통령 선거를 위한 참관에 대해 사회단체의 대표들과 협약을 체결했다. 조인식은 2월 6일(화) 사회원에서 진행됐다.

협약을 체결한 8개의 사회단체는 주 노동조합, '사할린주 상공회' 연맹, 사할린주 '러시아를 위한 국민전선' 전국 사회운동 사할린 지부, 사할린주한인협회, '부랴트 바이칼 향우회' 사할린 지역 사회단체, 러시아 언론인연맹 사할린 지부, 사할린주 사회감독위원회, '러시아 여성연맹'의 사할린 지부다.

사할린 지역에서 총 15개 비영리 사회단체가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2024년 3월 15일 - 17일 진행되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 선거 진행 감독을 위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한다.

이 행사의 주 목적은 투표와 모든 관련 행사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독하는 데 있다.

러시아 연방 사회원은 러시아 정당들과 17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모두 명백한 절차를 위한 감독과 참관자의 공동교육, 외부적 방해 시도에 대처를 규정하고 있다.

새고려신문

2024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7,83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PP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수신: 이기철 재외동포청장님 귀하
발신: "모스크바 사할린동포 연합회"

모스크바 시
2024.02.01

청원서

존경하는 이기철 재외동포청장님
본 청원서는 2023년 12월 20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 통과에 관한 문서입니다. 재외동포청이 먼저 재외동포의 의견 수렴 및 기본 계획 수립을 주요과제들의 하나로 설정함에 본 청원서를 사할린 한인들의 특별법에 대한 의견으로 올립니다.

사할린 한인들은 이번 통과된 개정안에 의하여 사할린동포의 모든 직계비속이 부모, 형제자매와 함께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완을 긍정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통과된 개정안은 부모가 사망한 2세에게는 여전히 불공정한 해결책입니다:

1. 개정에 따르면 한국에서 거주하는 2세(1945.08.15전 출생자로서 <사할린동포>로 규정)의 30-40세 자녀들은 영주귀국을 할 수 있고 <사할린동포>의 남녀동생들로서 1945.08.15 이후 출생하여 70세 이상이 된 삼촌과 이모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KIN(지구촌동포연대) 논평에 따르면 '부모 사망한 2세들은 부모도 한국을 못 가고, 자신들도 못가는 처지인데 조카뻘의 3세들이 모두 대상이 되는 셈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법은 같은 가정의 형제자매들 사이에도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2. 이런 사례도 알려졌습니다. 영주귀국하신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망 후 홀로 남겨져 병이 들자, 딸이 한국에 와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8년 동안 돌보던 중 특별법의 제정 전에 어머니가 사망하자 딸은 어머니가 사시던 아파트를 비워야 했습니다.

3. 빈번한 사례로는 영주귀국 대상자들이 귀국신청 서류 제출 후 서류 검토 과정 중 연로한 '사할린동포'가 사망하자 '영주귀국 대상에 미해당'이라는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할린 한인 송환 실패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역사의 몇 가지 이정표들, 즉 외국에서 비보호 무국적자로 판명된 동포 보호의 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이정표 1. 1948년 정부수립과 1950년 전쟁 후, 한국은 극도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사할린 동포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없었습니다.

이정표 2. 1965년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귀국한 '화태귀환재일한국인회' 박노학 회장이 사할린 한인 송환 문제를 '한일 기본 상호관계조약' 협상 의제에 포함시켜 줄 것을 한국 정부에 호소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정표 3. 1994년 한국 적십자사와 일본 적십자사 사이에 완전한 송환이 아닌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강제동

원된 사람들과 배우자만이 조국으로 영주귀국하는 조건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산가족을 초래한 일본 정부의 이런 조건 주장에 한국 정부는 동의했습니다.

이정표 4. 2005-2023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사할린 한인들의 완전한 송환이 동포들을 보호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을 인식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5년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대 법안이 제17대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제 17대에서 20대 국회까지 15년 동안 수차례 법안이 발의, 토론, 임기만료 폐기가 지속되다가, 마침내 2020년 4월 29일에 사할린동포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1세대가 자식들과 떨어져 홀로 살면서 세상을 떠났습니까?

2020년에 제정된 특별법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의 동반가족을 배우자와 직계비속 1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정부와 의원들은 '법적으로 영주귀국 대상에 사할린동포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와 2세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란 사할린 한인들의 수많은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할린 문제에 대해 한국 법률전문가들이 발표한 견해로는 "사할린에 남겨진 동포들 입장에서 영주귀국 법안이 공정한 해결책이 아님을 정부 담당자들은 생각해야 한다."; 또한 어떤 공무원은 "부모 사망 동포의 영주귀국 대상 문제는 예산 확보, 법 개정과 관련해 다음 과제로 남겨두자."였습니다.

2023. 12월 20일에 통과된 특별법 개정안도 여전히 한국에 생존하고 있는 부모의 동반가족에게만 해당 됩니다.

끝으로 특별법 개정에 대한 KIN (지구촌동포연대)의 논평을 인용합니다. '이제 한국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의 출범으로 재외동포정책을 국가의 책무로 받아들였다. 역사적 아픔을 지닌 동포들을 보듬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기본계획도 발표하였다. 사할린 동포법의 적용에 사각지대를 없애는 사할린 동포법의 개정안을 재외동포청이 발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해 본다. 영주귀국 대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영주귀국하는 젊은 세대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정착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러시아 또는 영주귀국 이후 한국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영주귀국할 수 있도록 사할린동포 특별법 개정 추진에 힘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본 청원서를 모스크바 사할린 연합 회원들이 서명하고, 운영위원회가 증명함.

Руководителю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г-ну Ли Ги Чхоль от членов «Москов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г. Москва
2024.02.01

ОБРАЩЕНИЕ

Уважаемый г-н Ли Ги Чхоль!

Данное Обращение составлено в связи с принятием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Парламента Р.Корея 20.12.2023г. поправки в Спец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Агентство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оставило задачу сбора мнений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как одну из первоочередных задач. В связи с этим и направляем данное Обращение как наше мнение о Спецзакон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оспринимают положительно факт принятия поправки, расширяющей круг потомков, которым будет оказана поддержка для переезда и проживания в Р.Корея вместе с родителями и братьями, сестрами. Но принятая поправка остается несправедливым решением в отношении лиц 2-го поколения, родители которых умерли:

1. По принятой поправке молодые люди в возрасте 40-50 лет, дети родителей 2-го поколения, родившихся до 15.08.1945 г.,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по Спецзакону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оддержку в Корею, а их дяди и тети возраста +70лет, родившиеся после 15 августа 1945 г, дети не доживших до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родителей 1-го поколения, не могут. Цитата из Комментария KIN (Всемирное сообщество корейцев) по поправкам к Спецзакону: "Умершим родителям не суждено было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не могут поехать в Корею и их дети, однако те, кого условно можно назвать племянники, попадают под условия получения поддержки." Такой Закон порождает неравноправие даже среди братьев и сестер одной семьи.

2. Также известны случаи - дочь приехала к больной матери, оставшейся одинокой после смерти мужа и ухаживала за ней 8 лет до самой смерти. Спецзакон вышел уже после смерти матери и дочери пришлось освободить квартиру.

3. Согласно Спецзакону, если прямые потомки подали документы, но в процессе рассмотрения документов престарелые родители скончались, в итоге им отказывают в праве на репатриацию.

Пролистывая страницы истории несостоявшейся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хочется напомнить некоторые вехи истории, позиц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орея в вопросе защиты сво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казавшихся беззащитными людьми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в чужой стране.

Веха 1. После обретен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в 1948 г. и послевоенные 50-е годы Р.Корея в силу крайне тяжел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не могла осуществить репатриац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еха 2. В 1965 г.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а по репатриации корейцев с Сахалина» Пак Но Хак приехал из Японии и обратился 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 просьбой включить вопрос о возвращении корейцев с Сахалина в повестку обсуждения «Соглашения об основа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но получил отказ.

Веха 3. В 1994 г. было заключено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Красным Крестом Р.Корея и Японией об условиях неполной репатриации, а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лиц,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или родившихся на Сахалине до 15.08.1945г. Правительство

Японии настояло, а Р.Корея согласилась на эти условия - разделение семей.

Веха 4. 2005-2023 гг.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депутаты Р.Корея осознали, что полная репатр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е состоялась по вин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орея, которое не смогло защитить сво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пусть поздно, но необходимо исправить положение. Так в 2005 г. в Парламент 17-го созыва был внесен первый проект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15 лет, с 17 по 20 созыв длились многократные внесения, обсуждения, блокирование разных проектов Спецзакона и, наконец, 29.04.2020г. состоялось принятие Спецзакона. Сколько людей 1-го поколения умерло вдали от детей за эти годы? Принятый Спецзакон 2020 г. дал возможность одному прямому потомку с супругой выехать в Корею к родителям для ухода за ними. Депутаты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вняли просьбе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обращени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закон должен включить 2-е поколение в список лиц на репатриацию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ого - суждено было их родителям дожить или нет». Вот опубликованные мнения корей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сахалинскому вопрос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олжно принять во внимание мнение оставшихся на Сахалин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 переселение по принятому закону не является справедливым решением» и официального лица: «решение вопроса в отношении лиц, у которых родители умерли, остается следующей задачей и связано с бюджетом и внесением поправки»

Поправка в Спецзакон, принятая 10 декабря 2023 г. опять-таки только о детях, чьи родители живут в Корею.

Хочется привести цитату из комментария KIN по поправкам к Спецзакону: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няло на себя обязательство по проведению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был принят Основной закон по зарубежным корейцам, создано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Всеми этими действия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возгласило план по проведению политики поддержк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ереживших исторические трудности.

Не теряем надежды, что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м корейцев займет активную позицию и предложит поправку к Спецзакону о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х, которая устраним «белые пятна» в Спецзаконе о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х. «Слепые пятна» в отношении переселения на ПМЖ в Корею должны быть устранены, и должна быть предоставлена более дет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для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переезжающего на постоянное жительство.»

Подводя итог, мы просим Вас приложить усилия в продвижении поправок в Спецзакон для репатриации потомков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умерших в России ил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Обращение подписано членами Москов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заверено Правлением и печатью Общества.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Активисты Сахалина передали маскировочные сети и корюшку бойцам в зону СВО

Жители Сахалина продолжают оказывать всестороннюю поддержку военнослужащим,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в зоне СВО. На этот раз очередные посылки для земляков собрала углегор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сообщает Telegram-канал «Углегорские ведомости».

Каждое из отправок — именно. В коробках — все, что может понадобиться бойцам, — предметы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медикаменты, теплые носки и много корюшки.

Вместе с тем активные жительницы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воими руками изготовили маскировочные сети, которые послужат уникальным укрытием от врагов.

Кроме маскировочных сетей сахалинки из общества подготовили еще три посылки. Каждая из них собрана с большой любовью и заботой о ребятах.

В свою очередь сахалинский военнослужащий Максим поблагодарил островитянок за помощь в трудные минуты.

Фото: Telegram-канал «Углегорские ведомости»



К Дню российской науки

Молодая фил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самом конце января в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книги А.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остоялись XXVII Чеховские чтения, на которых было представлено более пятидесяти докладов филологов, историков, педагогов, сотрудников учреждений культуры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 и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 Москвы,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Екатеринбурга, Саратова и Владивостока.

Самой многочисленной была секция, на которой обсуждали филологические аспекты творчества русского классика с проекцией на литературу прошлого и нашего времени. Магистранты кафедры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оделились на чтения первыми результатами сво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о краеведению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Предметом рассмотрения Корнеили Тихомировой стала повесть о поездке Чехова на каторгу Михаила Финнова «Три месяца и три дня» (1980), а Екатерина Шурмина сосредоточила внимание на вариантах перевода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стихотворения ирландца Шеймуса Хини «Чехов на Сахалине» (1984). Запомнилось участникам чтений и дистанцион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магистрантк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Анастасии Ким, которая подробно разобрала грамматическую структуру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 (1890) Чехова через микросюжеты.

Научные шаги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ученых в условиях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овершаются во время учебы в магистратуре, в том числе и по программам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иностранного.

В день рождения А. П. Чехова в этом году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иберуниверситета в Сеуле открылся памятник русскому классику. А это значит, что многие чеховские темы, в том числе 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меют будущее.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СахГУ

КНДР сообщила об испытаниях «сверхкрупной боевой части крылатой ракеты»

3 феврал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ообщила о проведенных накануне успешных испытаниях «сверхкрупной боевой части крылатой ракеты».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агентства ЦТАК, испытания, проведенные в Жёлтом море главным управлением ракетостроения КНДР, были направлены на развитие технологий новых вооружений. Испытания проводились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ланом и не имеют никакого отношения к ситуации в регионе. Они не оказали никакого негативного влияния на безопасность соседних стран, подчеркнул в заявлении. Никаких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подробностей, в том числе, о количестве запущенных ракет и дальности их полёта, не приводится. На фотографиях, опубликованных ЦТАК, видно, как крылатая ракета, летящая на малой высоте, ударила по зданию и взорвалась. Объединённый комитет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сообщил, что запуск серии крылатых ракет был произведён с западного побережь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2 февраля около 11 часов утра.

KBS World

На Сахалине состоялся Первый открытый турнир по "Юннори" (윷놀이)

В минувшую пятницу, 2 феврал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рамках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го проекта «Открывая безграничные источники знаний» прошел Первый открытый турнир по настольной игре «Юннори» (윷놀이). Его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стали кафедра восточной филологии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Ассоциация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ООСК и РМООСК при поддержке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Ариран.

Программа мероприятия была насыщенной и увлекательной: участники узнали о вековой истории игры Юннори, ее философском смысле, азах и правилах игры. В эту игру традиционно играют в кругу семьи, когда приходит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Соллаль). И в Корее нет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е знали бы про эту игру.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Эльвира Лим и ведущая мероприятия,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ластной Ассоциации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нна Корнеева.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судьи (6 чел.). Ими стали носители языка(корейского):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К на Сахалине Чжон Сын Хун,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при ККЦ Ким Ми Ген, а также члены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Ариран.

Состязания прошли в двух групповых категориях среди 12 команд. Группа I включала в себя школьников (7-11 классы) и студентов (6 команд). Кстати,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не только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о и Корсакова и Долинска. Группа II была представлена командами, состоящих из педагогов, творческой интеллигенции, спортсмен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ООСК и РМООСК (6 команд).

Как сообщ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в самих состязаниях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60 чел., помимо этого в зале было немало болельщиков, которые с интересом наблюдали за происходящим, поддерживали играющих. В зале было ве-



село, царил дух азарта и доброго соперничества. Так что два часа состязаний пролетели незаметно.

Интересны результаты турнира. Команды были обозначены номерами. Как оказалось, и в Группе I, и в группе II абсолютными победителями стали команды под номером 2. Они победили с результатом 5:0. Одинаковый результат показали в обеих группах команды под номером 4. У них было полное поражение со счетом 0:5.

Команды, занявшие 1, 2, 3 места были отмечены грамотами и подарками.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была также проведена увлекательная викторина с призами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по завершении состязаний гостей ждал сладкий стол с корейскими угощениями.

(Текст и фото Виктории БЯ)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с реальностью, а не уходить от нее

Во многих странах мира пытаются бороться с новыми негативными состояниями, такими как выгорание, принятие себя, депрессия. Хиллинг — достаточно молодое направление, которое появилось в США в 2000х годах. Оно направлено на достижение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го комфорта путем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го и ментальног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Лекция о хиллингултуре в Корее состоялась в рамках онлайнзасед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клуба ДРПК, созданного по инициативе форума «Диалог Россия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Её автор выпускница СПбГУ, кореевед, автор научных статей по Корее, переводчик Наталья Дмитриевская.

Россий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студентов посвятили в волнующую всех тему переутомления и стресса — так называемых побочных эффектах цивилизации. Среди причин популярности хиллинга в Корее лектор назвала жесткую социальную конкуренцию, которая начинается уже со школы,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самодисциплины, низкую рождаемость, старение общества. Из позитивных причин отмечают развитие медицины и подъе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уровня страны (четырнадцатая строчка в рейтинге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по ВВП), что позволяет выключить «режим выживания» и заняться ментальным здоровьем.

В Корее волна популярности хиллинга пришла на 2010-е годы: огромными тиражами продавались книги о саморазвитии, появилось множество психологических курсов, в университете Сонам был учрежден факультет хиллинга, открылись бесчисленные хиллингурорты. Сре-

ди недостатков такой концепции эксперт выделила краткосрочный терапевтический эффект, невозможность фундаментально изменить социальную структуру и критическое отношение к обогащению на чужом горе. После значительн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исходной концепции появилось понятие «Кхиллинг», который, по мнению Дмитриевской, основывается на традиционных ценностях (любование природой и почитание старших), коллективизме (взаимопомощь), эстетике (гармонизация внешнего и внутреннего), открытости (искренность). Если на Западе люди с помощью культуры и путешествий стремятся отстраниться от мира, уйти в медитативные состояния, то корейцы предлагают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с реальностью и учиться жить в гармонии с ней.

Государство и крупны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рпорации также поддерживают эту концепцию. Например, правительство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ит фестиваль KHealing, а одна из компаний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рамена с 2018 года кладет в свои боксы палочки с мотивационными надписями. Слушатели узнали о современных проявлениях хиллинга в корейском искусстве. Хиллингулство чем-то напоминает традиционное творчество. Например, художница Пак Соын любит изображать девушек в ханбоке на лоне природы, обычно в горной местности, где хочется раствориться. Горы в Корее считаются символом гармонии и исцеления.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а, многие современные драмы и фильмы затрагивают тему ментального здоровья и преодоления социальных проблем через принятие себя.

Пресс-служба СПбГУ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о случаю праздника Соллаль будет объявлена амнистия

Около 450 тысяч человек выйдут на свободу в рамках специальной амнистии по случаю праздника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Соллаль.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выступая 6 февраля на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Он отметил, что основной целью амнистии является активизация экономики, в этой связи планируется амнистировать пятерых крупных бизнесменов и семерых политиков. Их имена названы не были. От наказания будут освобождены осуждённые за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правонарушения работник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рыболовной отрасли, пассажирского и грузового транспорта. Решение об амнистии принимается комиссией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а затем утверждается кабинетом министров и президентом.

Аэропорт Инчхон готовится к наплыву пассажиров в праздник Соллаль

В период выходных по случаю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Соллаль с 8 по 12 февраля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аэропорту Инчхон ожидается большой наплыв пассажиров. По прогнозам администрации аэропорта, в этот период его услугами воспользуются 977 тысяч человек. Это в среднем 195 тысяч пассажиров в день, что на 53%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ибольший поток пассажиров в 202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ожидается в последний выходной день 12 февраля. Для удобства пассажиров на пункты специального контроля в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будут дополнительно направлены 120 сотрудников. На линиях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ого паспортного контроля будут работать 270 помощников-консультантов. С целью организации бесперебойной работы аэропорта все его системы тщательно проверены.

С 9 по 12 февраля культурные объекты будут открыты бесплатно

В выходные дни по случаю праздника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Соллаль с 9 по 12 февраля граждане страны и иностранные туристы с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посетить известные культурно-исторические объекты. Как сообщили в управлении по охране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к числу таких объектов относятся, в частности, четыре королевских дворца - Кёнбоккун, Чхандоккун, Токсугун и Чхангёнгун, королевское святилище Чонмё, гробницы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Во дворце Кёнбоккун в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том числе, смена королевского караула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дважды в день. Бесплатно будет открыт такж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музей соврем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С 2025 года приём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составит 5.058 человек

Начиная с 2025 года, приём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увеличится на 2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и составит 5.058 человек, чтобы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хронической нехватки врачей в сельских районах и врачей общего профил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6 феврал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Данное решение было ожидаемым, и Корейская медицин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уже предупредила о том, что начнёт всеобщую забастовку. Врачи утверждают, что несогласованное увеличение приёма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поставит под угрозу качество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услуг. Набор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составлявший до начала 2000-х годов 3.507 человек в год, постепенно снижался, и с 2006 года составляет 3.058 человек в год. Между тем, по данным Организац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развития (ОЭСР), в РК на каждую тысячу человек населения приходится 2,6 врача, в то время как средний показатель по ОЭСР составляет 3,7.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ых проблем, первичный врачебный приём длится в среднем 4,3 минуты, а средний показатель по ОЭСР составляет 16,4 минуты.

Роман Хан Хан вошёл в список номинантов на премию Эмиля Гиме

Роман известн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ы Хан Хан «Я не прощаюсь» вошёл в окончательный список из трёх номинантов на французскую премию в области азиат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 премию Эмиля Гиме. Названная именем французского промышленника и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а, собирателя коллекций азиат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основателя первого музея истории религий Эмиля Гиме, премия вручается с 2017 года литературным произведениям, написанным на азиатских языках. Лауреат будет объявлен 29 февраля. Роман «Я не прощаюсь», опубликованный в сентябре 2021 года, описывает трагические события апреля 1948 года на острове Чечжудо глазами трёх женщин. Жители острова восстали против правления военных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США, но власти назвали мирное восстание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м бунтом, жестоко подавив его. Французское издание романа было опубликовано в август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д названием «Невозможное прощани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оман получил престижную премию Медичи в области зарубежной литературы. (RKI)

Россия предупредила о росте напряже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Россию беспокоит наблюдающийся рост напряже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сновной причиной складывающейся ситуации является военная активность и целенаправленные действия США, которые провоцируют нестабильность в регионе. Москва при этом выступает за мир и стабильность в этой части мира, призвав Сеул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образом отреагировать и приложить усилия для налаживания диалога с Пхеньяном. Об этом по итогам своего визита в Южную Корею заявил российским журналистам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Ф Андрей Руденко, который находился в Сеуле с 1 по 4 февраля.

"Мы отмечаем, что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происходит рост напряженности, конфликт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Увеличивается опасность и случайного вооруженного конфликта, когда какая-то из сторон может спровоцировать эскалацию, не желая того. Хочется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выступает за мир и стабильность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 заявил зам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Ф в ходе брифинга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оссийских СМИ, аккредитованных в Южной Корею.

Говоря о причинах роста напряженности, российский дипломат указал на США в качестве главного фактора, который ее провоцирует. "Главный источник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 регионе - это рост военного присутствия США, активные и широкомасштабные военные маневры, которые Вашингтон совместно со своими союзниками проводит как в район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так и в других частях Восточной Азии - например, у Японии, на Филиппинах и других. Как нам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намеренно используют и создают такую ситуацию, чтобы еще больше закрепитесь в регионе, убедить союзников, что без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енных те не смогут обеспечить свою безопасность", - сказал Андрей Руденко. Он добавил, что продолжение подобных действий со стороны США крайне опасно, так как растет вероятность крупного вооруженного конфликта, который может случиться в том числе по неосторож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Ф Андрей Руденко. / Пресс-служба МИД РФ/ РИА Нов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ы МИД РФ отметил, что данную позицию Москвы он донес до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ллег, консультации с которыми прошли в ходе его визита в Сеул, призвав их предпринять шаги, чтобы инициировать конструктивный диалог с Пхеньяном.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ы", Андрей Руденко сказал, что у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ллег наблюдалс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подход и желание продолжать диалог с Россией. "Конечно, не по всем вопросам наши позиции совпадают, но мы видим, что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сохранении каналов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Россией. Мы также хотели бы поддерживать общение с различ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в том числе даже и теми, которые относим к категории недружественных, с учетом того, что многие из них являются нашими соседями, либо расположены совсем рядом с границами РФ", - сказал дипломат.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ошла памятная церемония в честь подвига крейсера "Варяг"

Восьмого февраля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городе Инчхон прошла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посвященная 120-летию юбилею со дня героического подвига легендарного крейсера "Варяг" и канонерской лодки "Кореец".

Напомним, что 9 февраля 1904 года российский крейсер "Варяг" и канонерская лодка "Кореец" приняли неравный бой с японской эскадрой в бухт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Чемульпо (Инчхон). Российские моряки сражались до конца, а затем предпочли затопить свои корабли, чтобы те не достались врагу. В 2004 году на набережной Инчхона появился памятник, посвященный 100-летию героического подвига российских моряков. Вокруг памятника затем был разбит небольшой сквер, а площадь стала носить название "площад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По уже сложившейся традиции и в этом году в Инчхоне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подвигу "Варяга" и "Корейца". В церемо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руководство и сотрудники посольства России, военный атташе, профессора вузов, студенты, учащиеся русской школы при посольстве РФ и журналисты.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прошла на площад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у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священному "Варягу" и "Корейцу".

Выступая с речью, посо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Георгий Зиновьев, отметил, что подвиг российских моряков является "символом несгибаемого русского духа, памяти, которая всегда с нами в том числе и сейчас". Дипломат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история "Варяга" и Кореи оказались тесно связанными. В 1905 году Страна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стала протекторатом, а в 1910 году вообще утратила свою независимость, став



колонией Японии. Вернули Корею свободу советские солдаты, с оружием в руках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освободившие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от японских оккупантов.

Георгий Зиновьев отметил, что и сейчас Россия продолжает вести борьбу за свои интересы, призвав отдать дань уважения российским воинам, которы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ходятся на полях сражений.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осольстве, запланирована целая серия торжественно-памят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ключая возложение цветов на могилу российского дипломата Сергея Виссарионовича Чиркина, который служил в царское время в российской миссии в Корею, а потом был захоронен на кладбище Янхвачжин в Сеуле. Позже будут возложены цветы к колокольне российской миссии, реставрацию которой власт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лицы недавно завершили. Вечером в комплексе посольства РФ состоится торжественный прием в честь Дня российского дипломата.

Текст и фото Олег Кирьянов (Инчхон, РГ)

День рождения только раз в году

Москва, 5 февраля – ИА РУСКОР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оведет восьмидневное культур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в этом месяце по случаю 82-й годовщины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покойного лидера страны Ким Чен Ира. 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искусств пройдет с 11 по 18 февраля в Пхеньяне, чтобы отметить годовщину, которая приходится на 16 февраля, согласно официальному Центральному информационному агентств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тмечает дни рождения двух сво-

их покойных лидеров — деда и отца нынешнего лидера Ким Чен Ына, Ким Ир Сена и Ким Чен Ира — как два самых важных праздник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еще не подтвердила официально не объявила день рождения Ким Чен Ына,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родившегося 8 января 1984 года, национальным праздником.

День рождения Ким Чен Ира был объявлен национальным праздником в 1982 году, когда ему было 40 лет, через восемь лет после того, как он был назначен преемником своего отца и основателя страны Ким Ир Сена.

Школа искусств Смирных станет базовым центром проекта «Сириус» для центральных и северных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а

На базе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Смирных организуют занятия для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из центральных и северных районов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ириус». Об этом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воспитанниками учреждения.

В ДШИ занимается 200 детей. Работают 4 отдел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пред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 народ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живопись, фортепиано, виолончель. Также реализуются 5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общеразвивающих программ – эстрадное пение, основы звукооператорского мастерства, раннее эстет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хоровое пение,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ое искусство.

– В сентябре 2022 года мы организовали оркестр русских народ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и очень стремительно растем. Мы уже успели стать лауреатом областного конкурса «Преображение»,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ем как в региональных, так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области и районные власти нам всегда помогают с музыкальными инструментами и оборудованием, –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пгт. Смирных Андрей Посохин.

В 2024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ние меж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сводного детского оркестра русских народ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развитие вок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здание детских вокально-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х спектаклей.

– Коллектив молодой, талантливый. Ребята хотят заниматься и расти. Поэтому мы решили организовать на базе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Смирных базовый центр для занятий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ириус». Дети из центральной и северной частей острова будут здесь заниматься вокальным и музыкаль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 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а Лаврик.

Ребята исполнили для гостей композицию популярного российского артиста Шамена «Встанем».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гласил весь коллектив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нцерте «Своих не бросаем»,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21 феврал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 воспитанникам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отделения главе региона передали картину выпускницы Смирныховской ДШИ с семейной историей. На полотне изображен ветеран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Картину передадут в музей «Победа».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продолжают оказывать поддержку органам внутренних де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ит оказывать всестороннюю поддержку сотрудникам органов внутренних дел. Об этом заяв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ходе расширенного заседания коллегии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ход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ов внутренних дел региона в 2023 году и определены задачи на 2024 год.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внутренни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енерал-полковник полиции Виталий Шулика, принявший участие в заседании в режиме видеосвязи, поблагодарил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региона за конструктив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а личный состав сахалинской полиции за проделанную работу.

В ходе своего доклада начальник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енерал-майор полиции Арсен Исагулов отметил, что благодаря реализуемому в тесн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и всем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ми структурами комплексу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регионе сохраняется стабильная оперативная обстановка. В частности, совершенно меньше тяжких преступлений против личности, уменьшился и массив краж чужого имущества, которые традиционно в структуре преступности составляют наибольшую долю среди всех видов преступлений.

– Фактором стабильности остаётся повседневное поддержание правопорядка и обще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улицах и в друг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ах, где с 2018 года отмечается стабильное снижение уровня преступности. В немалой степени этому способствует успешное развит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аппаратно-программного комплекса «Безопасный город», на реализацию котор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рошедшем году выделено более 5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подчеркнул начальник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сен Исагулов.

Генерал-майор также отметил, что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области и Министерством внутренних дел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рамках субсидии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поступило 5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за счёт которых, в том числе, закуплены 15 автомобилей для нужд полиции, проведены работы по технической укреплённости и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защищённости, работы по капитальному ремонту объектов УМВД и подчинённых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органов, в том числе на которых оказывают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услуги.

Вместе с тем одним из наиболее острых вопросов сегодня остаётся обеспеченность жильём сотрудников полиции на островах.

– Мы готовы оказывать поддержку сотрудникам полиции в решении различных вопросов, в том числе жи-

лищного, есл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будет выделено Министерством внутренних дел. Мы строим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жилья, в том числе арендного. Полиция выполняет важнейшие задачи по охране правопорядка, борьбе с преступностью, созданию безопасных условия для жизни людей на островах.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гиона всячески этому содействует,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а региона также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правоохранителей на миграцион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работы. Благодаря действиям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в области нет предпосылок к возникновению конфликтов,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й розни. Важно, чтобы мигранты находились в правовом поле, соблюдали и были официально трудоустроены. Также губернатор отметил, что сегодня, в условиях проведения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важно быть максимально бдительными и на корню пресекать все попытки дестабилизации обществ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ссказал Владимиру Путину о стратегии будущего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 режим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провел совещание о реализ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по созданию сети кампусов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ложил главе государства о ход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Тех» и об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ах, отвечающих новейшей стратегии «Университет 4.0».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тметил, что создание кампусов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 это важнейшие шаги в развити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целом по стране. В России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появится 25 передовых кампусов.

– Дальше думаем над тем, как продлить эту программу, и наверняка будем ее продлевать, потому ч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ужно менять среду, в которой живут будущи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инженеры, специалисты других направлений. Это востребовано, и мы, безусловно,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делать это хорошими темпами и с высоким качеством, – сказал Президент.

Министр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алерий Фальков назвал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лидером в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 Все девять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были отобраны в 2022 году, сегодня проектируются, везде есть контрольные точки, регионы соблюдают сроки. Регион-лидер – Сахалин. Они очень быстро запроектировали, и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они во второй очереди, мы заложили камень еще лет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Все остальные, начиная с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только будут выходить из Главгосэкспертизы, и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разверну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 отметил глава Минобрнаук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опережением графика сегодня возводятся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сдать его планируется в 2026 году. А в 2025-ом должно завершить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овременного студенческого городка.

– Для нас это просто жизненно важная позиция. Без си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мы не сможем развивать экономику, создать для молодежи стимул оставаться учиться и жить тут. Мы не ждём, когда стройка закончится, и начинаем формировать научные лаборатории уже сейчас. Современный кампус – это не только стены, а это ещё и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Лабораторный корпус для студентов оборудуют на базе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гд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развиваются новые шельф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влечь инженеров и ученых дочерних компаний «Газпрома», чтобы они учили будущих коллег применять знания на практике.

– Когда научный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процессы происходя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зоне, это приближает к технологии Университета 4.0. Мы сейчас разрабатываем такую стратегию совместно со «Сбером». В этой стратегии важное место займет также новая энергетика. Мы победили в федеральном конкурсе, и нам доверили развивать передовую инженерную школу в области водорода. Вместе с нашими партнерами – МФТИ и МГТУ имени Н.Э. Баумана – мы уже в этом году создаем водородный полигон. Фактически это небольшой завод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водорода и ряд пилотных проектов по использованию водорода и водород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 современной жизни. Мы стремимся, чтобы университет был построен вовремя и был интегрирован в бизнес-процессы, которые происходят сейчас на Сахалине, – сказал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оздание кампуса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на Сахалине играет важную роль и для улучшения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на островах. Выпускники школ в родном регионе будут получать качественное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по программам, созданным под запросы ведущих предприятий, и трудоустроившись в эти компании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дипломов. Кроме того, «СахалинТех» позволит привлечь талантливую молодежь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Сахалинские аграрии расширяют ассортимент с господдержкой

Мария Смолина выращивает картофель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на решила объединиться с местными личными подсобными хозяйствами и создать кооператив «Успенское».

– Сегодня нас шестеро, мы занимаемся выращиванием картофеля, овощей. Затраты и прибыль делим на всех. Кооператив даёт возможность заключать договоры

с любимыми точками продаж, это большое преимущество, – поделилась Мария Смолина. – Благодаря господдержке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м расширяться, закупили семена моркови и огурцов.

Финансовую помощь кооперативу предоставили в област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Более 700 тысяч рублей его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или в виде субсидии от министерств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Эти средства покрыли половину стоимости теплиц, которые приобрели хозяйства.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ж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более 20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кооперативов. Они расположены по всему региону, в том числе на Курилах. Кооперативы могут получить субсидии по несколь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а также грант на развитие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й базы до 7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отметила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Ольга Шкардюк.

– Мы высоко оцениваем усил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поддержке сельхоз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Развиваясь, эта отрасль создаёт нов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поддерживает сельские территории, обеспечивает регион продукцией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 отмет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союза организаций профсоюзов Александр Кознов.

Сопровождают работу фермеров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Центре развития сельхозкооперации. Специалисты помогли Марии Смолиной открыть кооператив, пройти профильное обучение и получить финансовые меры господдержки.

– Инициативным группам аграриев мы помогаем объединиться в кооперативы, а также сопровождаем методически. Рассказываем, как и где получить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и оформляем необходимые документы, – рас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развития сельхозкооперации Татьяна Бутакова.

Напомним, Центр развития сельхозкооперации и поддержки фермеров входит в структуру сахалинского центра «Мой бизнес». Помощь аграриям оказывают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Малое и средне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который инициировал глава страны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дробнее: selkhozcentr65.ru или 8 800 222 0123 (доб. 4).

Более 50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в сахалинских селах благоустроили за 5 лет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нацпроекта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который инициирова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реобразуются не только города, но и сел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лагоустроили сквер в Красногорске и привокзальную площадь в Ильинском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В 2022 году обустроили две территории в Горнозаводске – на Советской и Шахтовой, сквер памяти в селе Ныш и детскую площадку в селе Вал Ногликского района.

Итоги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подвели на круглом столе, прошедшем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штабе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народного фо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сего за 5 лет провели работы на 51 обществ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в островных селах и еще 103 – в городах. Это скверы, набережные, парки, аллеи, пешеходные зоны, территории около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объекты, которые благоустраиваются, выбирают сами жители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онлайн-голосовании. В этом году оно пройдет традиционно весной.

– Вовлеченность в процесс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у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несомненно, растет. Каждый год все больше людей голосуют за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которые хотели бы видеть в своих городах и селах. Кроме того, сахалинцы вносят и свои предложения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мы за эти годы воплотили в жизнь, вдохновляют людей, они начинают смотреть на свои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уже совсем по-другому. Для нас важно участие в голосовании каждого жител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скольку мы формируем городскую среду именно для них,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Федоров.

Благодар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благоустроили зону отдыха в районе «Рефулеры» в Поронайске, въездную группу в Аниве, смотровую площадку «Курильская вершина» в Курильске, городской парк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парк Победы в Южно-Курильске, площадь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Л.В. Смирных, площадь Мира в Холмске и десятки друг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 Преобразование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замечают все. Это результат масштабной ежегодной работы, которой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уделяет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должна быть, прежде всего, безопасной и разнообразной, поэтому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стало одним из приоритетов для властей. Мы все понимаем, что от того, насколько комфортно людям во дворах, в скверах, парках и на набережных, зависит их настроение, самочувствие, работоспособность. Гораздо приятнее погулять по ухоженной, благоустроенной аллее, чем идти по тропинке пустыря, – подчеркнула врио руководи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сполкома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Алена Силачева.

В ходе круглого стола также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 содержания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ных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и затронули тему повышения уровня компетенций специалистов на местах для эффективного создания безбарьерной среды.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박완수 경남지사, "모두 행복하고 따뜻하길" 기원 양산 사할린 한인마을 방문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설명절을 앞두고 5일 양산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마을을 방문하고 러시아 사할린에서 고국에 돌아온 주민들을 만나 명절 인사를 나눴다.



경남 양산 사할린한인 센터에서 사할린 한인들과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제공=경남도청]

간담회에서 박장녀 양산시 사할린한인회 명예회장은 "몇십 년간 지낸 지역을 떠나와 이곳 양산에 정착했지만, 명절 즈음만 되면 가슴 한편에 쓸쓸함이 느껴진다"며 "바쁜 일정에도 도지사가 사할린 한인을 위해 방문해줘서 마음이 녹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2009년 귀국했을 당시 언어 소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자체와 봉사단체의 도움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풍성한 한 해를 시작하는 설 명절에는 도민 모두 행복하고 따뜻해야 한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포함해 경남 곳곳을 면밀히 챙겨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경남도는 2023년 2월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들을 지원할 체계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초생계급여 등 복지급여 제공, 위안 행사 개최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사할린 한인들이 마음 편히 경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 언론매체들에서)

재외동포정책위, 재외동포정책 5개년 범정부 기본계획 확정 정체성 함양·동포 보호·지원 강화·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외교부 장관) 심의를 거쳐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월 30일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외교부, 재외동포청,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등 11개 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2028년까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12월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와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국내외 재외동포와 국민,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확정된 기본계획은 '전 세계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 사회의 대변자를 비전으로 명시했다.

5대 정책 목표로 ▲재외동포정책 강화 체계 확립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국력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는 동포를 제시했고, 14개 중점 과제와 99개 세부 과제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해 동포사회와 협력해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거주국에 알리기 위한 협력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위해 거주국 교과서 등 다양한 매체에 한국 발전상을 수록해 국제적 신뢰를 제고하고 한인들의 자긍심과 정체성 유지를 돕는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해의 위난 상황 시 동포들에게 신속하

게 구호품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재외동포 및 국내 체류 동포 등의 생활 현장을 찾아 꼼꼼히 살피고 따뜻하게 보듬는 민생우선 정책도 추진한다.

또, 동포사회와 연계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펼쳐 범정부 차원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도 적극 부응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편리한 동포 생활을 위해 해외에서의 민원 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재외동포 인증센터'를 구축해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신원을 확인하고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도 포함했다.

정책위원회에 참가한 민간위원들은 "지난해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동포사회의 숙원이었기에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소외되는 동포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 기본계획이라 5년간 충실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견 없이 승인했다.

재외동포청은 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이기철 청장은 "올해는 범국가적 차원의 재외동포정책을 처음 수립한 뜻깊은 해"라고 강조하며 "기본계획 확정으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700만 재외동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 동포사회의 대변자로서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설

Lunar New Year's Day

설날, 원일(元日), 원단(元旦), 원정(元正), 원신(元新), 원조(元朝), 정조(正朝), 세수(歲首), 세초(歲初), 연두(年頭), 연수(年首), 연시(年始), 신일(愼日), 달도(旦初), 구정(舊正)

설은 한 해의 시작인 음력 1월 1일을 일컫는 말로 설날이라는 말과 같은 우리나라의 명절이다. 원일·원단·정조 등 여러 명칭이 있다. 설은 시간적으로는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 새 달의 첫날인데, 한 해의 최초 명절이라는 의미도 있고 대보름까지 이어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이었다. 삼국시대 문헌에서부터 설 명절에 대한 기록이 보이며, 의례, 민간신앙, 복식과 음식, 놀이 등 설 명절 관련 세시풍속 또한 풍성했다. 신성한 날이라는 신앙적 의미가 컸지만 오늘날은 조상에 차례를 지내는 것만 남았고, 세시풍속 또한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징과 의의

설은 우선 한 해의 첫날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특히 신성한 날이라는 신앙적인 의미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설은 신성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오늘날의 설은 국가차원의 공휴일이지만 전 통사회에서처럼 대보름까지 설명절이 이어지는 않는다. 설날은 초하루로서 차례를 지내는 날이다. 그리고 성묘는 설을 전후하여 한다. 근래에는 설 연휴를 이용하여 국내외 여행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반면 민속박물관이나 민속촌과 같이 설날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곳을 가족 단위로 찾는 문화가 생성되기도 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구정과 신정이라는 신년을

두 번 맞는 문화를 만들었다. 설날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오늘날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와 같은 인사말을 연간 두 번에 걸쳐 한다. 좋은 말이니 많이 할수록 좋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태양력을 기준으로 한 새해에 이미 인사를 하고 다시 설에 똑같은 인사를 한다는 것이 다소 어색하다.

실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신년 인사말은 전통적인 덕담이 아니라 새로 생긴 현대판 덕담이다. 그렇다면 일상적인 양력으로 새해를 맞았을 때에는 신식 덕담을 나누고 우리 전통명절인 설날에는 "과세 안녕히 하셨습니다", "과세 편안히 하셨습니다"와 같은 전통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도 무방하리라 본다. 이는 설이라는 전통문화를 소박하게나마 이해하는 길이다.

설과 추석 무렵이면 '민족대이동'이 화두가 되고 있다. 명절연휴에 고향을 찾는 인파가 물결을 이루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어른'들이 자녀를 찾는 역류현상도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은 고향을 찾는 인구가 많다. 그래서 오늘날 설은 '전통문화를 보존'한다는 측면과 '만남'을 갖는 절대적인 시간이 된다는 측면에서 소중한 것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신간] 초등학생을 위한 우리말 생각 사전

우리말 속에는 어떤 생각과 비밀이 숨어 있을까? 우리말 연구가와 함께 떠나는 우리말 속의 수수께끼 찾기 여행, '초등학생을 위한 우리말 생각 사전'(2024, 주니어마리)이 출간됐다.

이 책은 우리말 어휘학자인 조현용 경희대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 전공 교수가 쓴 <우리말 선물>, <우리말 지혜>, <우리말 교실>, <우리말 소망> 등 우리말 시리즈를 원작으로 우리말알림이 팀이 초등학교 3~6학년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 쓴 책이다.

조현용 교수의 우리말 시리즈는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우리말 속에 담긴 긍정과 위로, 행복을 알리는 에세이들이 담겨 있는데, 이중 어린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글을 선별했고 여기에 아기자기한 일러스트들이 더해졌다.

저자는 우리말이 더욱 위대한 이유가 우리말 속에 담겨 있는 조상들의 훌륭한 생각들 덕분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바로 우리말 속에 숨어 있는 우리 조상들의 좋은 생각들을 찾아 떠나는 여행과도 같은 책이다.

책은 첫 번째 장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고운 우리말', 두 번째 장 '좋은 마음이 자라는 깊은 우리말', 세 번째 장은 '들으면 힘이 나는 놀라운 우리말'로 구성됐다.

옛 우리말에서 '아름'은 '나'라는 의미였어요. 결국 '아름답다'라는 말은 '나답다'라는 뜻이지요. 우리 조상님들은 나다운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아름답다'라는 말 속에는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본래 모습에서 진짜 아름다움이 나온다는 뜻이 들어 있어요. 11쪽

'차라리'를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하며 쓰는 대신, '이러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해결책을 찾을 때 사용해 보세요. '공부가 하기 싫어서 게으름 피울 시간에 차라리 수학 숙제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마음 먹는 거지요. 116~117쪽

괴로울 때 '까짓것'을 떠올려 보세요.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 밖으로 소리 내어 말해 보세요. 그러면 속이 시원해져요. '나만 혼난 일이 대수인가?'라고 별것 아닌 일로 넘길 수 있어요. '발표 한



'초등학생을 위한 우리말 생각 사전'(2024, 주니어마리) 표지

번 망친 거? 별것 아니야.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고 스스로를 달래고 위로할 수 있고요. 125~126쪽

원작자인 조현용 교수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생각이 담긴 우리말을 알려 주고 싶어서 '초등학생을 위한 우리말 생각 사전'을 펴냈다"며 "어린이 여러분이 '이 책을 만나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정말 좋겠다"고 말했다.

조현용 교수는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 전공 교수로 있으며,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 전공과 일반대학원 한국어학 전공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재외동포와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말 어휘학자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언어문화, 어휘와 사고 등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Концерт посвятили главному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фестивалю авиации и музыки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который мы проводим на островах каждое лет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за три дня мероприятие собрало 50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Он отметил, что в 2024 году фестиваль пройдет с 19 по 21 июля на аэродроме Пушистый.

〈해양의 섬들. 쿠릴〉전시회, сахалин에서 개최

Сахалин주 네벨스크시에서 새로운 전시회가 열렸다고 сахалин주 미술박물관 측이 전했다.

전시회에서는 미술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сахалин과 극동, 소비에트, 러시아 화가들의 그림과 그래픽 작품들이 전시된다.

박물관 측은 쿠릴열도의 자연은 언제나 화가들을 매료시켜 그 아름다움과 지역의 독특함이 반영된 작품을 창작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전시회는 박물관 관람객들에게 쿠릴의 현대적인 모습과 그 역사와 자연적 풍요로움을 더 많이 알려주고 있다. 관람은 2024년 4월 1일까지 할 수 있다.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Острова в океане. Курилы»

Новая экспозиция открылась в Невельск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а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лены произведения из собственных фондов музея. В их числе - живопись и графика сахалинских,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советских и россий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Природ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всегда привлекала к себе художников, которые создают произведения, отражающие красоту и уникальность этого региона», - отметили в музее.

Экспозиция предлагает гостям музея узнать больше о современных образах, их истории и природных богатствах. Посетить выставку можно до 1 апреля 2024 года.

〈сахалин 아쿨릭〉자선 대중 스케이트대회 개최

2월 4일(일) '아레나 시티'빙상장에서 'сахалин 아쿨릭(сахалин 상어)' 클럽의 선수들과 함께 자선 대중 스케이트대회가 열렸다.

행사가 세 개 부문으로 진행된 가운데 수백 명의 참가자들은 웃음과 건강한 정서를 발산하며, 즐거움과 유쾌함이 가득했다. 참가자들은 클럽의 선수들과 함께 스케이트를 탈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연에도 참가하고, 줄다리기와 골넣기 경연에도 참가했다.

이와 함께 참가자들은 따뜻한 차와 맛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며, сахалин 하키선수들과 사진도 찍고, 사인을 받기도 했다. 자선행사 일환의 결과 10만130루블이라는 적잖은 금액이 모금되었다. 모금된 금액은 특수군사작전 구역에 있는 сахалин 주민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Сахалинские акулы» провел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е массовые катани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воскресенье, 4 февраля, в ледовом комплексе «Арена Сити» состоялись сеансы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х катаний на коньках вместе с игроками клуба «Сахалинские акулы».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хоккейного клуба.

Три части мероприятия были наполнены радостью и восторгом, вызывая сотни улыбок и положительных эмоций. Участники не только катались на коньках вместе с игроками клуба, но и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различных конкурсах, таких как перетягивание каната и конкурс буллитов. Помимо этого, гости наслаждались горячим чаем с вкусняшками, а также делали фотографии и получали автографы от островных хоккеистов.

В результате, в рамках акции была собрана немаленькая сумма в размере 100 130 рублей. Известно, что собранные средства направят на поддержку сахалинцев, находящихся в зоне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сахалин에서 스노모빌을 타던 스포츠 선수, 눈사태 당해

1월 29일 сахалин의 스노우보드 선수 올렉 비비코브가 산에서 스노모빌을 타다 발생한 불운의 사태에 대한 소식을 공유했다. 그는 미지의 경사면에서 시험 운전 중 하다가 눈사태를 당했다.

비비코브는 굴러떨어지는 순간 스노모빌을 탄 채로 그는 온 힘을 다해 운전대를 꼭 잡았다. 20분 후 그의 친구들이 그를 찾았을 때 그는 거의 눈덩이 속에 갇혀버렸다. 눈 침투를 막도록 그가 쓴 특수 헬멧 덕분에 목숨을 구하고 숨을 쉴 수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비비코브를 눈에서 파냈을 때 눈덩이 속에는 많은 나무와 돌들이 있었고, 눈사태는 그를 40m -50m 아래로 끌고간 상태였다.

На Сахалине во время катания на снегоходе спортсмена завалило лавиной

29 января извест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сноубордист Олег Бибилов поделился информацией о несчастном случае, который произошел с ним в горах во время катаний на снегоходе. Мужчина решил опробовать неизвестный ему склон, и оказался под лавиной снежных масс.

Бибилов пояснил, что в минуты обрушения находился верхом на сноубайке, и держался за руль из последних сил. Когда мужчину нашли друзья спустя всего лишь 20 минут, он был почти полностью завален снегом.

Как признается сам спортсмен, спас его только специальный шлем с отсеиванием снега - он мог дышать. Когда мужчину откопали, оказалось, что в снежной массе было много веток и камней, а лавина протащила мужчину на 40-50 метров вниз.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4 год!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 107 руб. 83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0-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